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대나무 고부가 상품화 나선다

전남대·조선대 공동 연구 삼푸·캔들 제작 저온 열처리 기술·평판화 장치 개발 성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대·조선대와 함께 ‘국산 대나무의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 두피케어 삼푸 등 친환경 고부가 상품화에 나선다.

‘국산 대나무의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은 산림청 연구개발

(R&D)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7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국산 대나무는 캔들과 디퓨저 등 원통형 상품으로 가공돼 국내외에 유통 판매되고 있으나 갈라짐 현상과 곰팡이 발생 등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수입산 대나무와의 가격 경쟁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높이고 환경친화적 고부가 상품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전남대 이형우 교수와 박종년 교수 연구팀은 대나무 통대의 안전한 건조를 위해 저온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원통형 대나무에 적용한 결과 갈라짐 현상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나무 마디를 포함한 원통형 대나무의 평판화 장치를 개발해 벽재·바닥재

등 생활 인테리어 자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대나무류에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 7종을 새롭게 분리 동정했으며, 친환경보존제 선발시험을 통해 항곰팡이 효능을 확인해 대나무류 발생 곰팡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대 신현재 교수 연구팀은 대나무 수액과 대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대나무 삼푸인 ‘폴론’을 개발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 대나무수액 함유 삼푸는 국제환경

EWG 그린등급(EWG Verified)에 해당하는 인증을 획득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EWG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환경단체로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안전성을 녹색과 황색, 적색 3등급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중 녹색은 가장 안전성이 높은 등급이다.

대나무 삼푸 ‘폴론’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두피케어 전문삼푸다. 출시 후 와디즈 1차 펀딩에 1,000%를 달성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상태로 다양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시작한 상태다.

앞으로 연구팀에서는 갈라짐과 곰팡이 발생이 없는 대나무원통 가공기술을 적용한 대나무 캔들과 디퓨저 등 다양한 대나무 가공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국산재 대나무 산업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기술 개발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외부 전문가 등 20명...승진·징계 자체 의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자체 공무원 인사권을 확보한 전남도의회가 인사위원회를 20일 공식 출범시켰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징계 등 신분·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 의결기구이다.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근산 기자

김한중 의장은 “인사위원회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3일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로 발령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당 미래시민광장위 “대선 승리 앞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남본부는 20일 오전 11시 무안 남악신도시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조정식 미래시민광장 상임위원장, 주철현

미래시민광장 전남상임본부장, 주선동·배용태 본부장을 비롯한 전남공동본부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최적의 후보다”며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후 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전남이 견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남의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앞으로 3주가 중요한데 전남이 앞장서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시민광장 전남본부가 승리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남본부는 앞으로 전남지역 시군 단위 플랫폼을 꾸려 운영된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장으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전국확산 등 김치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치산업 발전 공로 감사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장으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전국확산 등 김치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방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기간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과거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등이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설 연휴 긴급상황 119로 전화하세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이용 안내가 필요할 경우 119로 전화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시 119종합상황실은 오는 27일부터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하고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

한다.

이윤리 연휴기간 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119신고접수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를 사전 점검하고 상황발생 시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4일 동안 광주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2,868건, 1일 평균 717

건으로 평일 평균 836건보다 약 14.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집방문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119 이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지만, 병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은 1일 평균 167건으로 평소 105건보다 약 59%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 상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건설현장 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장연주 광주시의원,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사전)은 20일 시의회 예결특위의실에서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

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부와 위원장은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면서 “발주·설계·감리·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진행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도 명확히 나와있다. 발주자·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의 책임을 무게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의사

결정 권한에 비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제3자 감시장치를 두고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주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